

외국인노동자가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연말까지 17개 언어로 확대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9.26.(금)부터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노동자들도 외국어 기반*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올해 말까지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 17개 언어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될 예정이다.

* 산업안전에 관한 우리말 설명과 함께 외국어 자막 또는 음성 안내 제공

** 필리핀, 중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주요 교육내용은 외국인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안전수칙, 보호구 종류 및 착용 방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3시간 분량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내용 요약, 퀴즈 등도 함께 제공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안전리더, 공단 강사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교육내용과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을 수강하고 개선 의견을 낸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외국인노동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kosha.step.or.kr)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누리집(www.kosha.or.kr)에 접속하여 컴퓨터(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이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라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연말까지 17개 언어로 확대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외국인노동자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안내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	책임자	과 장	김문실 (044-202-8990)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2-8885)
산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국인전담팀	책임자	팀 장	박동언 (052-703-0275)
		담당자	차 장	천우현 (052-703-0277)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안내

이러닝



“ 외국인 여러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이러닝)을 수강해 주세요 ”

대상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25년 12월부터 17개 언어로 확대)

교육 내용 3시간 과정 (9개 주제, 각 20분)

연번	주제	연번	주제
1	안전의식함양 및 근로자 권리와 의무	6	산업재해 유형별(넘어짐)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	보호구 종류 및 착용	7	산업재해 유형별(끼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3	안전보건표지	8	폭염·한파 등 건강장해 예방
4	기본 안전수칙	9	화재 대피요령 및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5	산업재해 유형별(떨어짐)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기존 일방적 강의방식에서 탈피하여 드라마, 퀴즈 등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

수강 방법 인터넷이 가능한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수강 가능
최초 1회 PC(kosha.step.or.kr)에서 회원가입 필요 (회원가입 이후 스마트폰 수강 가능)

혜택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
② 「이벤트(~10.31, 수강후기 (옥의 티를 찾아라)」 운영

- 1 kosha.step.or.kr 접속
- 2 회원가입
- 3 로그인



- 4 수강신청
- 5 나의 학습
- 6 수료증 발급